

지역명예 걸고 무등을 품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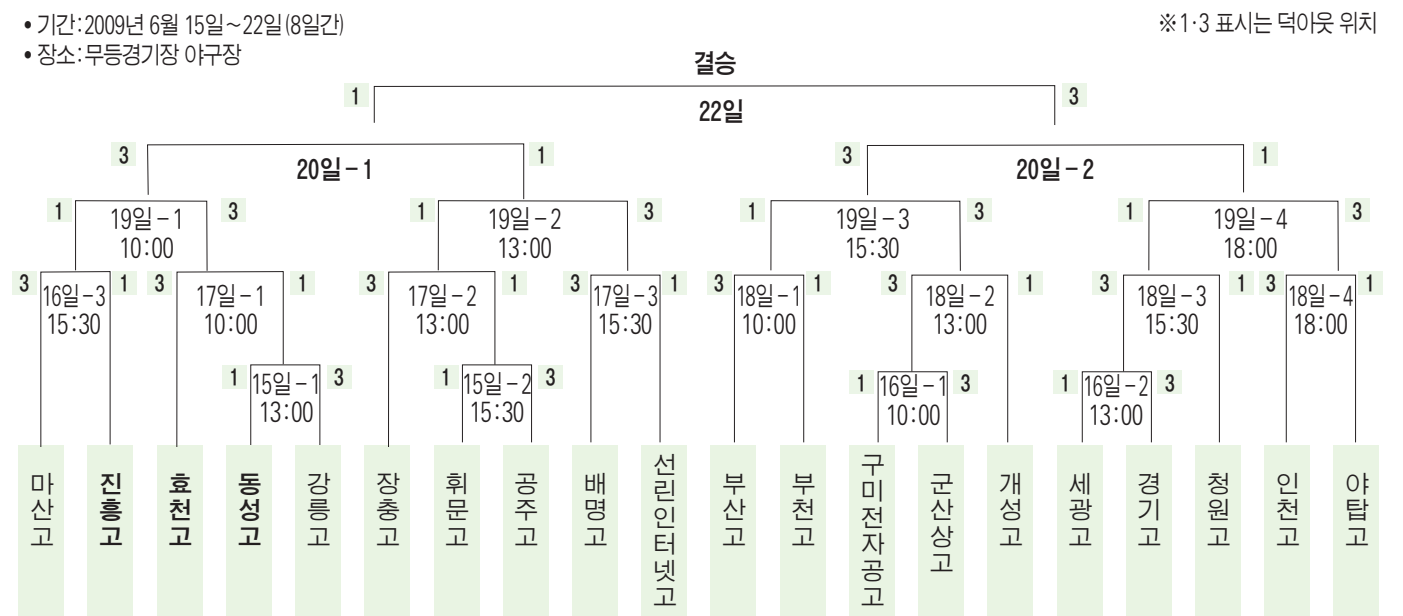
무등기 전국고교야구 오늘 광파르 전국대표 20개팀 참가 8일간 열전

실록이 푸르러 가는 6월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아마야구의 큰 잔치가 펼쳐진다. 제 16회 무등기 전국고교야구대회가 15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개막, 8일간의 열전을 펼치게 된다. 광주일보사와 대한야구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대회에는 동성고, 청원고, 부산고, 인천고, 공주고 등 지역예선을 통과한 20개 고교팀이 출전해 모교의 명예를 걸고 우승에 도전한다. 15일 오후 1시에 열리는 대회 개막전에서

는 전국대회 10차례 우승에 빛나는 전통의 강호 동성고와 2007년 청룡기 준우승에 빛나는 강원도의 명문 강릉고가 격돌한다. 동성고는 우완 에이스 유경국과 좌완 에이스 이영기 그리고 언더 박선용이 버티고 있는 마운드를 앞세워 개막전 승리를 노리고 있다. 동성고는 또 풍부한 전국대회 경험과 끈기를 앞세워 무등기 우승에 도전한다. 첫 경기에 난적 동성고를 만난 강릉고는 신명철·윤승환·박재현으로 이어지는 클린업 트리오의 파워로 맞서게 된다. 안정된 팀

워크로 대회 돌풍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다. 휘문고와 공주고도 16강 티켓을 놓고 대회 첫 날 맞붙는다. 휘문고는 타선의 힘이 약화됐다는 평가지만 고른 배팅 능력과 함께 작전 구사능력이 좋다. 마운드에는 위기 관리 능력이 돋보이는 사이드암 백산하가 대기하고 있다. 공주고는 참가 선수 중 가장 빠른 공을 뿌리는 안승민을 내세워 16강 진출을 노린다. 최고 146km의 강속구를 보유한 안승민과 함께 고봉찬·김기선·고세진으로 구성된 타선

제16회 무등기 전국 고교야구대회 대진표



이 16강행을 준비하고 있다. 휘문고와 공주고의 두 번째 경기는 오후 3시30분부터 진행된다. 앞선 세 차례의 전국대회에서 서울팀이 우승을 싣을 한 가운데 지난 대회 우승팀 청원고를 비롯해 경기고 등 서울지역에서 6개 고교가 출사표를 던졌다. 탄탄한 마운드의 동성고, 진흥고, 군산상고는 호남야구의 자존심을 걸고 서울팀 독주 저지에 나선다. 145km의 빠른 볼을 구사하는 김태권과 정교한 제구력의 최영환을 전면에 배치한 개성고(옛 부산상고)는 발 빠른 유격수 임재현을 중심으로 한 탄탄한 수비로 경남지역의 야구 부흥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한편 이번 대회는 대한체육회와 광주광역시체육회·전라남도체육회가 공동 후원하고, Xports가 중계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실책은 곧 패배

베이스 커버 안되고...내야수 호흡 안맞고... KIA, 한화화 9차전 앞두고 특별수비훈련

한화 이글스와와의 시즌 9차전이 열린 14일 오후 1시 30분. 경기장 곳곳에서 대기하던 선수들이 그라운드에 일제히 소집됐다. 웨이트장에서 운동을 하고 있던 나지완도 김선빈의 호출에 황급히 글러브를 챙겨 들고 나서는 등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 투수·야수 할 것 없이 글러브를 챙겨든 선수들은 일제히 그라운드에 도열해 조를 맞춰 캐치볼을 하기 시작했다. 경기 전 선수단 전원이 단체로 캐치볼을 하는 것은 시즌 중에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다. 잠시 후에는 아예 투수들이 마운드에 줄을 서기 시작했다. 한 선수 한 선수 공을 던지는 시늉을 한 뒤 김동재 수비 코치가 처내는 볼을 쫓는다. 내야수들도 투수의 움직임에 따라 수비 위치를 바꿔가면서 동분서주다. 캠프지에서나 볼 수 있는 시뮬레이션 수비연습이 진행된 것이다. <사진>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른 이날 땀방아 아래서 훈련을 한 선수들은 이내 땀으로 흠뻑 젖었다. 경기가 있는 날 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 연습까지 강행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전날 경기에서 KIA는 엉성한 수비로 주지 않아도 될 점수를 주며 3-8로 패했다. 13일 3회초 한화 오선진이 선두타자 안타로 출루한 뒤 '꼬꼬마 키스톤' 2루수 안치홍과 유격수 김선빈의 실책 두 개가 연달아 나오면서 두 명의 주자가 홈을 밟았다.



노련한 장성호도 7회 2사 1·2루 상황에서 아웃카운트를 착각하면서 엉뚱한 송구를 하고 말았다. 원아웃이라고 생각한 1루수 장성호가 땅볼을 잡은 뒤 더블 플레이를 할 생각으로 2루를 향해 공을 던졌다. 베이스 커버에 들어간 유격수 김선빈은 예상치 못한 송구인데다 주자까지 시야를 가리는 바람에 공을 잡지 못했다. 9회에는 오선진의 1루수 앞 땅볼 때 투수 임준혁이 베이스 커버를 들어가지 않으면서 1루가 텅 비어버렸고, 내야 안타가 됐다. 신인 노장 가리지 않는 미숙한 플레이가 속출하면서 아쉽게 경기력을 놓친 KIA는 결국 14일 특별 수비 훈련까지 감행하면서 전력 재정비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나연 첫 승 꿈 이룰까

맥도널드LPGA챔피언십 3R 선두에 2타차 3위...신지애 5위

"첫 우승은 메이저대회에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한국군단의 '영건' 최나연(22·SK텔레콤)이 시즌 두번째 메이저대회 맥도널드LPGA챔피언십에서 역전 우승의 가능성을 높였다. 최나연은 14일(한국시간) 미국 메릴랜드주 하브드그레이크의 볼록 골프장(파72·6천641야드)에서 열린 대회 3라운드에서 17번홀까지 버디 5개, 버디 2개를 묶어 3타를 줄였다. 번개로 인해 나머지 홀을 마치지 못한 최나연은 15번홀까지 10언더파를 적어낸 신인애나 노르드크비스트(스웨덴)를 2타차로 추

격하며 3위에 올라 LPGA 투어 첫 우승이자 메이저대회 우승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해 LPGA 투어에 뛰어들어 최나연은 올해 11개 대회에서 단독 3위와 공동 3위 한번, 공동 6위에 한번 오르는 등 좋은 성적을 올렸지만 우승과는 인연을 맺지 못했다. 3홀을 남기고 9언더파를 적어낸 2위 린제이 라이트(호주)와 노르드크비스트가 대회 마지막날 21개홀을 돌아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최나연은 부담없는 경기를 펼칠 수 있다. 최나연은 전반에 4타를 줄이며 치고 올라갔지만 11번홀(파5)과 12번홀(파3)에서 1타씩을 잃는 바람에 상승세가 꺾이는 듯 했다.

하지만 최나연은 16번홀(파4)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작년 2부 투어 상급랭킹 5위에 올라 LPGA 투어에 진출한 박진영(23)도 3라운드에서 3타를 줄여 중간합계 7언더파 209타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또 한명의 무시못할 선수는 신지애(21·미래에셋). 신지애는 3타를 줄이며 3라운드를 마쳐 중간합계 6언더파 210타로 공동 5위까지 뛰어 올랐다. '파이널 라운드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초반 부진을 이겨내고 순위를 끌어 올린 신지애가 마지막 날 이름값을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합뉴스



'투르드 코리아' 힘찬 질주

14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투르드 코리아 2009(Tour de Korea 2009)' 마지막 구간에 참가한 선수들이 힘차게 자전거 페달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봉산중 소프트볼 '최강'

광주여대 기보배 금 명중

평화통일배 여자중학부 정상

소년체전이어 2관왕 영예

광주 봉산중이 2009 평화통일배 전국여자소프트볼대회 정상에 올랐다. 봉산중은 지난 12일 경남 진주시 연암공립대학 LG 전용 야구장에서 열린 대회 중학부 결승에서 충북사대부중을 8-4로 가볍게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봉산중은 지난 전국소년체전에 이어 이번 대회까지 휩쓸며 전국 최강팀의 위력을 과시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봉산중 정수주는 최우수선수상을 받았고 정혜인은 우수투수상, 최하나는 미기상 그리고 이보현은 도투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또한 봉산중 김이중 감독은 감독상, 박은식 교장은 공로상을 각각 받았다. 한편 13일 열린 대학부 경기에선 상지대가 시립인천전문대학에 10-0 콜드게임 승을 거두며 대회 2연패의 영예를 안았다. 상지대는 예선에서 막강한 공격력을 앞세워 호서대와 인천전문대학을 각각 18-0, 24-0으로 제압했다. 상지대 김진아는 10타수 9안타의 맹타를 휘둘러 타격상을 수상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여자 명궁' 기보배(광주여대 4년·사진)가 제26회 회장기 전국대회·실업양궁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다. 기보배는 14일 강원 원주양궁장에서 열린 대회 여자부 70m경기에서 335점을 기록, 장혜진(계명대·335점)과 함께 공동 1위를 차지했다. 30m 경기에서는 신은성(광주여대·3년)이 355점을 쏘 장혜진(계명대·356점)에 이어 어렵게 은메달에 그쳤다. /연합뉴스